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A+ 차돌

학습 내용 식품공학 학습

학습 기간 23. 4. 12. ~ 5. 25.

팀 원 임요한, 전재민, 박주호 (식품생명공학과 18학번)
정상목, 김종원 (식품생명공학과 19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4월 12일	18:00~20:00	면학관 이노베이션실	소모임의 학습 내용인 유체 흐름의 원리, 열전달, 물질전달은 세 부적으로는 유체정역학(유변학), 유체 흐름의 형태(층류, 난류, 유체의 거동, 유동거동, 변형률), 유체 경막 또는 경계층(전이 길이) 등등 다양한 식품공학에 관한 정의와 문제를 각각 조원 수 대로 파트를 나누어 이해하고 풀었습니다.
5월 2일	18:00~20:00	면학관 이노베이션실	두 번째로 진행한 교과 스터디 모임에서는 중간고사에 대한 Review를 진행하였으며, 단위와 차원, 물질수지, 에너지 및 엔탈피 수지, 유체의 흐름1에 대한 전체적인 review를 했습니다. 서로의 오답을 비교하고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주어진 Table을 보고 단위를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이 또한 서로 강의 듣는 동안 필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단위를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월 23일	20:00~22:00	면학관 이노베이션실	이번 교과 스터디 모임에서는 기말고사 범위 중 유체역학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와 문제풀이를 모여서 하였습니다. 유체역학 부분은 중간고사 이후 진행되는 수업에서 큰 두가지 파트 중 하나이며 이전까지는 유체의 흐름에 대하여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유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을 정리하고 정지상태의 유체와 흐르는 상태의 유체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배울 유체역학과 열역학 부분은 중간고사까지 배운 부분의 심화과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 이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5월 25일	20:00~22:00	면학관 이노베이션실	마지막 교과 스터디 모임에서는 열역학의 기본 메커니즘인 Conduction(전도)과, Convection(대류), Radiation(복사)에 대해 공부하였고, 정지된 물체 내에서 한 영역의 온도가 다른 영역보다 높을 때 그 물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푸리에(Fourier)법칙을 학습하여 열 전도현상을 알게 되었으며, 어떤 한 영역의 온도가 다른 영역의 온도보다 높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알아보았다. 또한 정지된 유체에서도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걸 알았으며, 육안으로는 유체가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분자 수준에서 보면 유체(기체, 액체)분자는 무작위 운동(random motion)을 하고 있으며, 분자의 무작위운동에 의하여 열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사실을 공부했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식품공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어렵고 수업을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하나 항상 걱정했었는데 같이 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또 아는 부분을 알려주고 하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알아서 배움을 얻었고 아는 사람은 알려주면서 아는 부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이후 교수님께서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써오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팀원들이 다 틀려서 오답노트를 해야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오답노트를 할 때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오답노트를 쓰니 어떠한 공식을 쓸까부터 시작하여서 다른 방식을 써도 좋을 것 같더라는 토론을 하면서도 지식이 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해한 내용과 모임원들이 이해한 내용을 비교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학 소모임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기말고사를 잘 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조원들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임요한

혼자서 학습하는 것에 익숙하고 직접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익숙했었지만, 이번 소모임을 통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공부를 할 때에도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학습을 한다면 보다 넓은 사고를 갖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후에 학습법 소모임이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주호

작년에 식품공학을 혼자공부하면서 꽤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모임을 통해 다같이 풀어나가니 훨씬 이해하기 좋았고, 팀원들이 원동력이 되어 전보다 더 식품공학을 공부했던것 같아서 아주 좋은 모임이었다.

정상목

식품공학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할지 감이 오지 않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다행히도 공학 소모임을 통해 서로 어렵거나 이해가 가지 않았던 파트가 다른 부분도 있었고 공통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던 파트에 대해선 다같이 공부를 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서 한층 더 공학을 이해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김종원

식품공학을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팀원들과 함께 모여서 풀고 하니깐, 훨씬 도움이 됐고, 다같이 토론을 하면서도 지식이 늘어서 좋았습니다. 기말고사 이전에 소모임이 끝나게 되어 아쉽지만 소모임이 끝나고도 좋은 친구 선배들과 같이 기말고사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약물터디

학습 내용 일반물리학 학습

학습 기간 23. 4. 28. ~ 5. 26.

팀 원 권채연, 신은서, 안우진,
오채현, 이해원, 이윤상 (약학과 23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4월 28일	12:00-14:00	미래관 201호	4단원 힘과 뉴턴의 운동 법칙 -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 관련 개념 비교하며 학습하였으며 관성 모멘트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심화 탐구하였다. - 자유 물체도를 그리는 목적을 조원들과 함께 탐구하고 직접 자유 물체도 그리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5월 12일	12:00-14:00	미래관 201호	4단원 힘과 뉴턴의 운동 법칙 문제풀이 토론 1) 벽의 모서리에 두 물체가 도르레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2) 경사로의 빗면과 벽면에 두 물체가 도르레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 대하여 함께 자유 물체도를 그리고 문제 풀이 진행하여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 고정도르레와 움직도르레의 원리를 탐구하였다.
5월 19일	12:00-14:00	미래관 201호	- 5단원 등속 원운동의 동역학 구심력: 우주 속도에 숨겨진 등속 원운동의 동역학을 찾아 학습하였다. - 6단원 일과 에너지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풀이하며 실습하였다. - 7단원 충격량과 운동량: 2차원 상황에서의 충돌을 분석하는 방법과 반발 계수에 따른 충돌 운동의 유형을 학습하였다.
5월 26일	12:00-14:00	미래관 201호	8단원 회전 운동학의 공식, 9단원 회전 운동의 역학 - 스터디 1회차에 학습했던 회전운동학 관련 개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였다. - 물체의 형태에 따른 관성 모멘트 공식을 함께 유도하였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학습에 있어서는 시간 투자, 공부법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공부하는 학문 자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감은 학습에서 성취를 얻는 경험과 이전과는 달 라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형성된다. 물리 스터디 조원들 모두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물리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는 물리학 공부에 대한 흥미로까지 이어졌다.

첫 수업 때에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밝히거나 함께 해결하는 데에 어색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의 지식 공유가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각자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관찰하면서 나의 생각과 조원들의 생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일반 물리학을 처음 접하는 조원들이 대부분이라 문제를 풀이할 때 암기한 공식만을 활용하거나 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스터디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풀이 과정 하나하나에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조원들과 공유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 풀이에서 원리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더 공부해야 할 내용이 생기는 경험도 있었다.

조원들 모두 고등학생 때에는 강의식 수업으로 학습하는 일이 많았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토의식 혹은 참여형 수업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있었다. 이를 학습 소모임으로 실습하면서 학습에 대한 시각과 지식을 넓힐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 있었다.

권채연

강의에서 이해가 안되었던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또, 모르는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고민해보면서 생각이 한 층 확장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채현

물리학을 제대로 접해보는게 처음이라 생소하고 어려워서 시작하게 된 학습 소모임인데, 이를 통해 물리학 수업만을 위한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닌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아 헤매던 부분들도 점점 이해가 되어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제가 아는 부분들은 알려주며 공부를 하다보니 저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기회가 되어 유익했습니다.

이해원

물리를 가장 어려워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기기 위해 참여하게 된 물리스터디였습니다. 매주 물리학 수업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에 모여서 해당 주제 공부한 물리 개념 내용을 같이 공부하며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물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던 건 물리 스터디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물리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어 뿌듯합니다.

신은서

물리 스터디에서 학습 내용 기록을 맡은 만큼 책임이 크고 스터디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모든 조원들이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덕에 스터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이 스터디를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안우진

물리학을 제대로 접한 지 오래되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하는지 방향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그러했는지 매주 물리수업이 끝나고 다같이 모여 어떤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등을 얘기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일반물리학의 학습을 굉장히 수월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을 타인에게 알려주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타인을 통해 알게 되면서 함께 성장했고 덕분에 지식의 공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윤상

학습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개인이 알고 있던 지식을 점검하고 더 나은 학습 방식을 알게 되는 계기였음을 느꼈다. 물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풀이 방식을 고민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더 나은 풀이를 고민하고 한층 더 물리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공부해야조

학습 내용 일반생물학/일반화학 학습

학습 기간 23. 5. 3. ~ 5. 22.

팀 원 박시은, 박온후, 신영혜, 김수빈
(미래융합대학 23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5월 3일	20:00~ 22:00	과학관 220호	일반생물학 1조는 에너지 대사에 대한 발열반응과 흡열반응의 개념과 과정을 정리하고 ADP가 ATP로 합성되는 과정과 가수분해에 의한 에너지 작용에 대해 복습하였다. 2조는 광합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반응과 캘빈회로 사이에는 ATP와 NADPH로 연결된 과정을 가지고 광합성에 대한 전과정을 공부하였다. 일반화학은 광전효과의 정의를 알고, 문턱진동수보다 낮은 진동수를 가진 빛의 경우와 큰 진동수를 갖는 빛의 경우를 비교하여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이해하였다.
5월 8일	20:00~ 22:00	과학관 220호	일반생물학 1조는 해당과정의 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당을 분해한다는 의미를 이해한 뒤 포도당 1분자에서 2분자의 피루브산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알고 그 과정에서 세보는 2NAD ⁺ , HADH 분자로 환원되고 최종적으로 2분자의 ATP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2조는 유사분열의 과정을 이해하고 암기하며 용어를 익히고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해하였다. 일반화학은 주기율표의 각 부분에 있는 원소들에서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을 직접 그려보고 비교해보며 이해하였다.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의 정의를 알고 이해하였다.
5월 15일	19:00~ 21:00	과학관 220호	일반생물학의 경우 1조는 명반응이 엽록체에서 틸라코이드막에 있는 엽록소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이곳이 ATP와 NADPH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2조는 멘델의 유전법칙을 더 세세하게 알아보고 멘델의 유전법칙의 예외도 알아보았다. 일반화학의 경우 전자전화도와 원자 오비탈의 개념과 그에 따른 많은 원리를 학습하였다
5월 16일	19:00~ 21:00	미래관 313호	일반생물학의 경우 1조는 유성생식의 바탕이 되고 이배체 생물체에서 반수체 배우자를 생산하는 과정인 감수분열을 이해하고 과정도 습득한 후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을 차이를 학습하였다. 2조는 유전물질의 구조를 살펴보고 DNA가 유전물질임을 확인한 실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화학의 경우 수소원자의 전자에서 가능한 에너지 준위에 대한 식을 익히고 이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였다.
5월 22일	14:00~ 16:00	현암도서관 그룹토의실	일반생물학의 경우 1조는 멘델의 유전법칙에 대한 큰 틀을 잡고 기초지식을 공유한 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복습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2조는 gene에서 protein으로 genetic information이 이동하는 과정과 genotype이 phenotype으로 나타나는 과정인 gene expression 과정을 학습하고, gene regulation에 대해서도 추가 학습하였다. 일반화학의 경우 옥텟의 확장 개념인 혼성화와 편재 전자모형을 알아보고 혼성 종류에 따라 어떤 구조가 생기는지 직접 그려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결합각, 결합종류, 분자의 orbital 등에 대해 학습하였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일반생물학은 광합성단원까지 학습하면서 생명체의 기본현상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의 과정을 살펴보고 큰 흐름을 잡고나서는 유전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다소 단어도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많았지만 조원들과 함께 좀 더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아보고 함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각자 수업을 듣는 교수님께도 질문하며 잘 해쳐나간 것 같다. 2조가 생각해낸 꿀팁과 공부법을 1조에게 넘기면서 좀 더 쉽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배운 내용을 다시 머릿속에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은 시간이었다 일반화학은 같은 진도로 조원 모두가 함께 공부를 진행하였는데 중간고사 때의 범위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지면서 고등학교 때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던 조원이 대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난 생처음 제대로 접해보는 오비탈과 광전효과 원자를 루이스 점자식으로 나타내보고 분자오비탈의 구조까지 조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해가며 오개념은 고치고 잘못된 방식은 바로 잡아가며 함께 해나갈 수 있었다. 덕분에 화학 쪽지시험에서 좋은 결과도 얻게되었다.

박시은

혼자 공부했었다면 절대 학습하지 못했을 것 같은 진도와 공부 효과를 조원들과 함께 진행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것 같다. 소모임 활동이 끝나도 계속 이어서 함께 공부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활동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신영혜

소모임 활동을 통해 내가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점이 좋았고 소모임을 주마다 함으로써 공부에 소홀히 하지 않게 되고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박온후

함께 모여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좋았다. 또 어려운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보며 해결함으로써 공부에 더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수빈

스터디를 통해 어려웠던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생명과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생명 현상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을 하여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또한 문제 풀이를 통해 화학이나 생물학의 궁금증이 해결되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물, 감(물리, 감잡았다!)
학습 내용	일반물리학 학습
학습 기간	23. 4 .28. ~ 5. 26.
팀 원	김민지, 서종우, 서하민, 이채연, 이해린, 정채원 (약학과 23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4월 28일	12:00-14:00	미래관 201호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고, 수직항력은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으로 N이라고 표현한다. 마찰력은 물체의 바닥면과 면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인 힘으로 f라 표현하며 접촉면적에 무관한 값이다. 장력은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5월 12일	12:00-14:00	미래관 201호	마찰력이 작용했을 때의 장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수평선에 위치한 물체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체 사이의 장력, 빗면에 위치한 물체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체 간의 장력의 크기와 가속도를 구하였다. 이때 빗면에 위치한 물체의 장력을 구할 때는 마찰력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할 때와 빗면 위 방향으로 작용할 때를 고려하여야 한다.
5월 19일	12:00-14:00	미래관 201호	충격량 J는 평균력 와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 간격 의 곱이다. 운동량 p는 그 물체의 질량 m과 속도 v의 곱이다. 충돌이 일어날 때 충돌 전후에 있어서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되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말한다. 충돌 현상은 보통 충돌하는 동안 총 운동 에너지의 변화 여부에 따라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구분된다.
5월 26일	12:00-14:00	미래관 201호	각변위란 고정축을 중심으로 강체가 회전하는 각을 의미하며, 편이상 회전이 반시계 방향이면 각변위를 양(+)으로 정하고, 회전이 시계 방향이면 각변위를 음(-)으로 정한다. 평균 각속도를 회전하는 데 경과한 시간으로 나눈 각변위로 정의한다. 각가속도는 경과한 시간으로 나눈 각속도의 변화를 말한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일반 물리학 교과 스터디 활동을 진행하면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고등학교 시절 물리에 대해 배우지 않은 팀원들에게는 일반물리학을 공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과 스터디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며 걱정이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특히 물리학을 이전에 배웠었던 팀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 더욱 확장된 개념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 QnA 형식의 학습 방법을 선택하였기에 스스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며 물리 수업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물리 개념과 물리 문제에 대한 해석과 다양한 풀이법 등을 채워나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었다. 특히 질문을 하면서 질문자 역시 스스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고, 답변자도 답변을 하며 알고 있던 개념을 복습할 수 있었다. 혹여나 답변자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답변을 듣고 있던 다른 팀원이 이를 바로 잡아줄 수 있기에 깊이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교과 스터디 팀원들 간의 합의 좋아 교과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고 새로운 활동 방식을 채택할 때에도 모두 동의하며 서로 언성 높이는 일 없이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팀원들 모두 활동에 진지하게 임해주었기에 가끔 휴식시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물리학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교과 스터디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팀원들과 만나 다 같이 일반 물리학 공부를 하며 교과 스터디 활동 때처럼 서로에게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고 이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다.

김민지

고등학교 때 물리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 일반물리학을 학습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과 스터디 활동을 진행하며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니 일반물리학 학습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 덕분에 즐겁게 일반물리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종우

물리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물리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탄탄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터디 그룹의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리학에 대한 이해도와 열정을 키울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과학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게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서하민

일반물리학 과목을 교과 스터디 없이 혼자 공부했다라면 헛갈리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기본개념을 탑재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을 볼 뻔했는데 스터디 활동을 통해 다 같이 학습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학습모임이 있다면 또 신청하고 싶다.

이채연

고등학교 시절 물리1과 물리2를 제대로 수강하지 않아 걱정했는데 물리 스터디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동기들과 함께 이해하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며 일반물리학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동기들과 추억도 쌓으며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해린

학습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반물리학 과목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학습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예상보다 훨씬 적은 부담감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해나가며 스스로 학습하는 것의 장점과 여럿이서 함께 학습하는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게 학습법을 발전시키며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채원

물리스터디를 하면서 물리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물리개념, 물리문제에 대한 해석과 풀이법을 채워나갈 수 있어 좋았다. 또한 학과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를 꾸려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의 공부 방법이었기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고 나도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물리 지식이 확장되는 것 같았다. 나 혼자서만 했으면 못했을 물리를 사람들과 함께 했기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쉽게 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차셋

학습 내용 TESAT 자격증 준비

학습 기간 23. 4. 22. ~ 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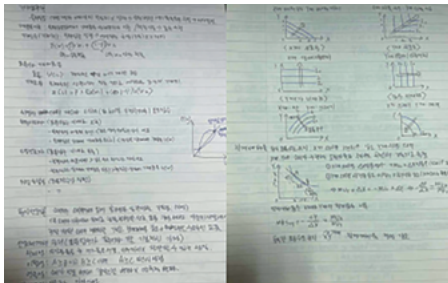
팀 원 김민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21학번)
김규리, 고수민 (데이터경영학과 21학번)
송지연 (데이터경영학과 20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4월 22일	20:02~22:03	구글 MEET	part 1인 미시경제를 학습한다. 이 부분은 경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것으로 경제학의 기초, 시장가격 결정 및 변경, 가격 탄력성, 시장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대한 이론 내용을 습득한다.
4월 29일	20:07~22:10	구글 MEET	part 2인 거시경제를 학습한다. 거시경제에서는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뉜다. GDP 부분에서는 GDP, 국민총소득(GNI), 평가 방법에 따른 GDP, MEW를 학습하며 국민소득 결정이론 부분에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이론을 비교해서 학습한다.
5월 6일	20:01~22:05	구글 MEET	part 3인 국제 경영과 part 4 경영&금융을 학습한다. part 3에서는 무역, 국제수지, 환율 등을 학습하며 기존 우리나라 경제경영에서 국제적인 내용 학습으로 범위를 넓힌다. part 4에서는 회사에서의 경제, 경영, 회계, 금융을 배우며 주식, 주주, 채권, 펀드 등의 용어 및 내용을 학습한다.
5월 13일	20:11~22:18	구글 MEET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시사용어 250선과 테셋 공식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사용어를 학습,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본 후 정답을 맞춰보면서 틀린 부분을 분석한다. FDI: 외국인 직접투자를 일컫는 말로,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설립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이다. 데카콘: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유니콘을 의미하며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칭하는 용어, 국민부담률: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레드백: 미국 달러화를 뜻하는 그린 백에 빔대어 중국의 위안화를 일컫는 용어다. 테킬라 효과: 멕시코의 국민 술로 알려진 테킬라로 만든 경제 용어다. 독한 술에 이웃 나라들이 모두 취한 것처럼 경제 위기가 주변으로 파급되는 상황일 때 사용한다. 1994년 12월에 발생한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 영향을 준 것에서 유래했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테셋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혼자 한다면 막막할 수 있었을 테셋이지만 소모임을 통해서 노력했기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론적인 부분부터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폭넓은 시사 용어 등 정확한 시험 범위 이외에 요구하는 지식이 많다 보니 양이 너무 많고 어려울 수 있었다. 소모임은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하면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학기 중에는 학업과 과제로 인해서 다른 자격증 도전에 대해서 꺼릴 수 있지만 함께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소모임 같은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김민지

데이터경영학과를 부전공하고 있지만, 완전한 전공생이 아니기 때문에 테셋 공부 시작과 진행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소모임을 통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도전한 결과에서 3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 했다면 할 수 없었던 일기기에 더 값진 결과였다. 다들 서로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도 소모임을 통해 함께 공부해서 3등급보다 더 높은 결과를 얻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수민

경제학을 배우면서 테셋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모임을 통해 동기들과 테셋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많았다면 직접 만나서 하면 좋았겠지만,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쁘다!!!

김규리

테셋은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아 시험을 봐야지 했으면서도 항상 미루고는 했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테셋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학습 분량을 미루지 않고 학습할 수 있었다. 소모임을 통해 계속 공부를 미뤘던 습관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었고 문제를 풀이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팀원들에게 질문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나 또한 팀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며 복습까지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다. 나는 테셋이 처음이라 혼자 공부했다면 중요 부분을 놓치면서 공부했었을 텐데 팀원들과 함께라서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시험 전 테셋 사이트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시사 & 경제 용어가 올라온다는 좋은 정보까지 얻으며 공부 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소모임 외에 개인적인 시간이 많지 않아 원하는 점수를 얻진 못하였으나 이번 소모임을 통해 얻은 공부 습관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며 또 좋은 소모임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송지연

이번 학기에 경제학이라는 전공 과목을 수강하면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좋은 기회로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인 테셋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격증 공부를 함께 하며 경제 공부에 재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격증 획득에 있어서도 뿌듯함을 느꼈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나은

학습 내용 토익 학습

학습 기간 23. 5. 3. ~ 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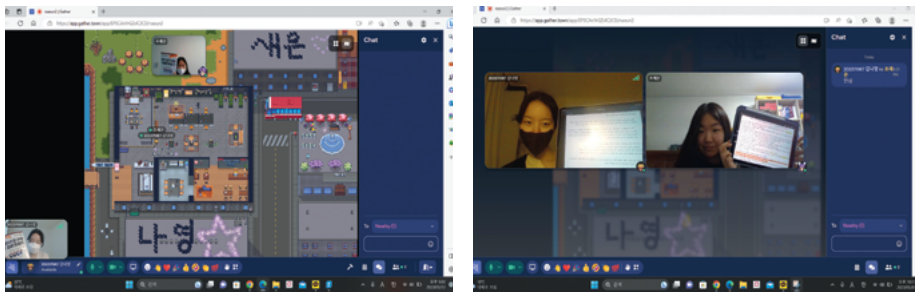
팀 원 김나영, 조새은 (미래융합대학 23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5월 3일	20:15~22:17	게더타운	메타버스 기술을 응용한 화상 통화 앱인 게 더 타운을 이용하여 우리만의 학습 공간을 만들었으며, CBBC 뉴스 자료를 필사하며 독해에 필요한 사회 이슈, 그리고 어휘를 학습했다.
5월 13일	15:02~17:02	게더타운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READING의 TEST 1 전체를 풀어 현재 자신의 실력이 어떠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했다. 이렇게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구축했다.
5월 17일	20:03~22:05	게더타운	해커스 토익 기출 보카 앱을 이용하여 DAY 1, 채용과 관련된 영어 단어를 학습했다. 또한,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의 TEST 2 PART 5, 6을 각자 나누어 풀고, 문제 유형과 핵심 내용을 서로에게 설명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5월 24일	20:05~22:05	게더타운	해커스 토익 기출 보카 앱의 DAY 2, 규칙과 법률에 관한 토익 단어들을 학습했다.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의 TEST 2 PART 5, 6을 저번 스터디에서 말지 않았던 반대 파트를 맡아 문제를 풀었으며, 각자의 오답과 해석, 학습법을 공유했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비교과 스터디를 진행하며 협력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만약 혼자 토익을 공부하려고 했다면 학교 과제나 공부, 혹은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되어 학기 중에는 토익 공부에 손도 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스터디 모임을 이용해 비교과 스터디를 만들어 보니, 친구와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목표를 잡고, 공부량을 조절하고, 서로에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협상 역량, 협력 역량, 소통 역량을 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학습법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또한, 막연하게 토익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생겼던 거부감을 해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 토익 시험문제를 풀어보고 학습법과 학습 방향을 설정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토익 시험에 도전하는 데에 큰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익 외에도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잘 알지는 못했던 메타버스에 대해 더 알고,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저는 추가적인 장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나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들어보지만 했지 직접 사용해 볼 일은 적었는데, 이번 소모임에서 학습 공간을 게더타운으로 설정하면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미래 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나영

함께 토익을 공부하며 자신이 느끼는 점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공유하며 나에게만 토익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부담감과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법 소모임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조새은

토익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는데 이번 비교과 스터디 소모임을 통해 토익의 문제 구성 및 풀이 방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단어를 꾸준히 외우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 모르거나 알면 도움되는 문법이나 방법들을 직접 정리하고 토론하는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더타운으로 소모임 공간을 만들며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습득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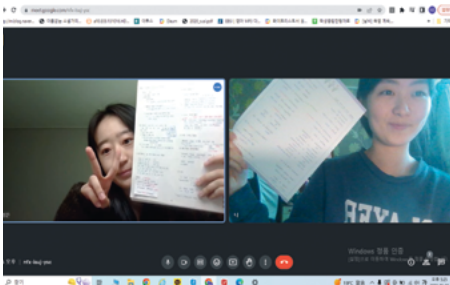
우수팀 명	Silver ball
학습 내용	토익 학습
학습 기간	23. 5. 1. ~ 5. 26.
팀 원	박성은, 박세은 (간호학과 21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5월 1일	13:09~17:25	ZOOM	학습활동 주제 : 토익 실력 진단 TEST ETS TOEIC 2022 하반기 정기시험 기출문제 200문항 문제지를 가지고, 2시간에 맞추어 모의 토익 시험을 보았고, 채점 후 헛갈렸거나 틀린 문제를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LC는 PART1에서 등장 묘사, 상태 묘사 단어 및 어려웠던 어휘를 정리하였고, PART2에서는 어려웠던 문제 중 우회적 답변으로 나온 문제를 해석하며, 답변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PART3의 경우 어려웠던 지문을 몇 개 골라 Paraphrasing된 단어를 찾아 정리하였다. RC는 PART5,6에서 주로 틀린 문법을 확인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틀린 문제를 정리하였다.
5월 8일	15:00~17:00	스타벅스	학습 활동 주제 : LC 단어 복습 및 TEST. LC PART 1, RC 1형식-5형식 LC PART1의 경우 유사 발음으로 인해 헛갈리는 해석을 정리하고, 구분하기 위해 뒤에 나타나는 단어를 들으며, 유사 발음의 단어를 구분하는 연습을 했다. RC의 경우 1-5형식의 문장을 공부하고,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정리 후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동사 암기를 했다.
5월 11일	15:00~17:00	스타벅스	학습 활동 주제 : RC 단어 복습 및 TEST. LC PART 3, RC 이어 동사 및 주장, 명령, 요청, 제안, 필요, 중요, 선호를 나타내는 동사 LC PART 3의 경우 문제를 풀면서 질문의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혔다. 또한 재표현된 단어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RC의 경우 이어 동사(자동사+전치사)에서 단어와 연관된 전치사를 익히고, 이어 동사의 성질을 공부했다. 또한, 주장, 명령, 요청, 제안, 필요, 중요, 선호 동사가 that 절 뒤 should의 생략으로 동사 원형이 나옴을 인지하고, 해당 단어를 말로 암기하여 서로 확인하였다.
5월 19일	15:00~17:00	강의실	학습 활동 주제 : LC 단어 복습 및 TEST, LC PART 3 중반부 학습, RC 문법 포인트 문제 풀이 및 리뷰 LC PART 3 중후반부는 빈출 질문을 확인하고, 이를 암기함으로써 문제 보는 시간을 줄이고, 보기 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RC의 경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실수한 문제는 확인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몰랐던 문법 포인트는 직접 교재를 찾아보며,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 정리하여 문제 풀이, 리뷰, 복습하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해석하면서 알아야 할 중요 단어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며 암기 시간을 가졌다.
5월 26일	15:00~17:00	자습실	학습 활동 주제 : RC 단어 복습 및 TEST, LC PART 3 후반부 학습, RC는 모의 토익 문제를 풀어보며, 부족한 문법 및 단어 정리 LC PART 3의 경우 후반부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빈출 질문을 정리하며 문제 보는 시간을 줄이고, 보기 보는 시간을 늘렸다. 또한 문제 및 보기들의 경향 및 표현들을 분석 후 학습함으로써 정답률을 높이며 하였다. RC의 경우 한 달 동안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한 번에 긴 호흡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실천 감각과 속도를 높이며 하였으며, 추가적인 문법 포인트 및 중요 단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박성은

이번 학기 토익을 확실히 올리자는 저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월에 이미 혼자 공부를 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스스로가 지쳐감이 보였고, 공부의 의욕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소모임의 공지를 보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 소모임을 시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러닝 메이트로서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중략) 토익 시험 결과가 보고서 제출날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소모임을 하면서 본 모의 토익을 통해 성적이 올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소모임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효율성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공부로 좋은 효율을 위해 소모임을 할 수 있었으며 좋겠습니다.

박세은

처음에는 스터디 모임과 학원 공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혹시라도 되려 부담감으로 다가가 힘들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 회차 스터디 모임을 거듭해나가면서 평소 혼자서는 공부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친구와 함께 하면서 메꿀 수 있었고 평소 끈기가 부족했던 저를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중략) 또한 오히려 스터디 모임에서 복습을 함으로써 정확히 각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자 정리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을 서로 물어봄으로써 머릿속에 개념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한 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저의 수준에 보다 잘 맞는 공부 계획을 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스터디 모임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던 저였기에 처음에는 진행하는 데에 있어 서투른 모습도 꽤 있었지만, 친구와 함께 서로 앞으로의 스터디 방향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봄으로써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똑딱이들

학습 내용 청소년상담사 3급 준비

학습 기간 23. 5. 4. ~ 5. 25.

팀 원 김도희, 이은주 (미술치료학과 19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5월 4일	12:30~14:00	미래관 501호	(생략) 해당 회차 학습을 통해 발달심리학의 기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관련 이론을 개별적으로 학습한 것에서 더 나아가 문제를 출제하고, 풀어보고, 오답을 확인함으로써 심화 학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5월 11일	12:00~14:00	미래관 501호	(생략) 해당 회차 학습을 통해 발달에 대한 전 생애적 접근 즉, 연령별 인지·신체·정서·사회적 발달의 주요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관련 이론은 개별적으로 학습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문제를 구성하고, 풀어보고, 오답을 확인해 봄으로써, 해당 주제의 핵심 개념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별 학습이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보충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었다.
5월 22일	20:52~23:37	ZOOM	(생략) 해당 회차 학습을 통해 발달단계에 따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미술치료 등의 상담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현재 어떤 발달단계에 놓여 있고, 그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지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번 회차에서 발달단계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고 학습하며, 발달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되었고 이후 상담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암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었고 문제 풀이 및 논의를 통해 개념을 심화할 수 있었다.
5월 25일	12:00~14:00	미래관 401호	(생략) 앞선 회차들에서 완벽하게 암기가 되지 않은 채 문제를 풀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회차 안에서 함께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암기해나갔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발달단계별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암기를 해야 했기에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회차를 통해서 는 그동안의 내용을 복습하며 좀 더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이후 청소년상담사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소모임에 참여하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 꾸준히 계획한 양을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시작을 해보니 계획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학습량이 줄어들기도 하였고, 계획한 것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주 동안 무조건 많은 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적은 분량을 학습하더라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더 유의미한 것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학교 수업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음에도 잘 암기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마음 먹고 암기를 하고자 노력하면서, 실제로 그 이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 다양한 암기 방법을 시도하면서 드디어 암기에 성공하기도 하여 그 뿌듯함과 성취감이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조는 학습 방식으로 매주 정한 분량을 한 주 동안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15문제를 출제한 후 풀이를 하고 오답을 진행한 후, 모르는 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회차들을 진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것은 ‘문제 출제 및 풀이와 오답정리’였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출제하면서 내가 그동안 암기하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책에서 제시해 준 그동안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개념을 위주로 문제를 내다 보니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 출제한 문제를 바꾸어서 풀 때 우리는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 덕분에 내가 무엇을 정확히 알고 모르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서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출제자가 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오답 설명을 해주며 출제자와 풀이자 모두가 그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경험을 하였는데 이는 학습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조에서 계획한 방식대로 학습을 했을 때 우리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이후 학습을 진행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진행기간이 한 달이라는 점이었다. 진행되는 기간이 한 달이다 보니 공부를 하는 습관을 이제야 막 들인 것 같은데 기간이 끝나버려서 그동안 함께 해온 목표도 함께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간이 조금만 더 길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다. 물론 이는 앞으로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몫이겠지만 이번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다. 그래도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받았던 동기부여를 그대로 갖고 가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나갈 예정이다.

김도희

(생략) 스터디를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론 학습에서 더 나아가 출제자가 되어 시험지를 제작했던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학습한 이론 중, 더욱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기출 빈도는 어떠한지 체계적으로 고민하며 학습에 임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닌, 출제된 시험지를 팀원과 공유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학습하며 놓친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팀원의 도움을 통해 보충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높은 성취감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 준비에 있어, 완성한 시험지를 중요한 자료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부할 예정이다. (생략)

이은주

이번 소모임에 참여하고자 한 이유는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기존에는 매년 ‘공부 시작해야지’, ‘이번에는 꼭 해야지’라고 생각만 할 뿐 학교 생활을 하느라 그 시작을 하기가 어려웠었다. 하지만 이번에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친구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서로 확인을 하고, 소모임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공부를 하면서 드디어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있었던 것 같다. (생략)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Princess.Choi

학습 내용

세포생물학 튜터링

학습 기간

23. 4. 25. ~ 5. 11.

팀 원

튜터 : 최준희(의생명과학과 20학번)

튜티 : 김기준 (의생명과학과 2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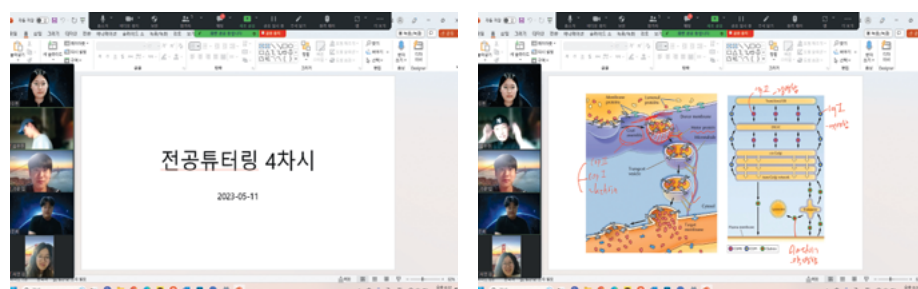
강수민, 김서연, 김우주 (의생명과학과 22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4월 25일	20:23~ 22:23	ZOOM	mRNA와 tRNA, ribosome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translation의 전 과정인 initiation, elongation, termination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였다. 관련 내용 중 translation을 regulation 하기 위해 repressor protein이 3'UTR과 IF에 붙어 initiation을 막는 방법, 3' UTR에 영향을 미쳐 transcription을 inhibition 하거나, target mRNA를 분해해 translation을 저해하는 방법을 어려워하는 튜티가 있어 이 기전을 자세하게 공부했다. 그리고 translation을 통해 생성되는 protein이 folding을 통해 functional protein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chaperone이 하는 일을 stabilize(protein이 만들어지자마자 붙어 protein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줌), facilitate(mitochondrion 내의 chaperone은 polypeptide의 folding이 facilitate하게 도와줌)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이해했다. 마지막으로 glycosylation 부분을 튜티가 자세하게 알지 못해 구체적인 과정을 다함께 알아보았다.
4월 28일	18:23~ 20:19	ZOOM	nuclear envelope를 구성하는 구성성분들, cytoplasm과 nucleus 사이의 traffic을 중심으로 학습하였다. 튜티에게 nuclear envelope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질문하였고 2개의 nuclear membrane과 nuclear lamina, nuclear pore complex로 이루어졌다고 답해줬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다른 튜티가 하여 nuclear lamina가 chromatin의 attachment site를 제공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으로 nucleus와 cytoplasm의 traffic을 배우며 nuclear pore complex를 복습하였다. selective transport에서 cytoplasm에서 nucleus를 드나드는 과정을 헛갈려해서 개념을 다시 정리했다.
5월 4일	18:20~ 20:29	ZOOM	protein이 만들어진 뒤 어떤 방식으로 싣고 나르는데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이 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Endoplasmic Reticulum과 Golgi Apparatus, Lysosomes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ER이 polypeptide를 functional 하게 만들어주는 folding에 기여하며 protein이 가야되는 목적지를 지정하여 vesicle로 이동시킨다는 기본 지식을 점검하고 교수님이 강조하셨다는 내용인 cotranslational translocation과정과 그 이후 folding, processing, sorting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살펴보았다. ribosome에서 polypeptide를 만드는 translation과 만들어지기 시작한 polypeptide가 ER로 location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Cotranslational translocation을 설명해준 뒤 튜티에게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튜티가 cotranslational translocation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다른 튜티에게 알려주었다.
5월 11일	18:32~ 20:34	ZOOM	Golgi Apparatus와 Lysosome에서의 transport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했다. Golgi apparatus는 ERGIC으로부터 물질을 받는 cis Golgi와 대부분의 modification이 끝난 Golgi stack, sorting과 distribution을 하는 medial&trans Golgi로 구성된다는 것, 각각의 기능을 학습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한 vesicular transport 기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줬다. vesicular transport에서 vesicle들은 recognize와 fuse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후에 vesicle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vesicle coat protein을 질문해서 ER에서 ERGIC, Golgi apparatus로 갈때는 COP2-coated vesicle이 protein을 옮기고 반대로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을 COP1-coated vesicle이라고 하고 또한 양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vesicle을 만드는 일을 Clathrin-coated vesicle이 관여한다는 부분이라 알려줬다. 다음으로 Lysosome에 대해 공부했다. lysosome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튜티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수업과 그림만으로는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는 과정들이 머릿 속에 그려지지 않았는데, 전공 튜터링을 통해서 튜터의 설명을 듣고, 튜터가 준비해온 영상을 보니, 그 과정이 머릿속에 확실히 그릴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수업만으로는 해당 수업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 따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번 전공 튜터링을 통해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튜터의 설명과 함께 다시 수업 내용들을 정리하니, 머릿 속에 더 정리가 잘 되고, 오래 남을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는 진도를 나가야되니까 계속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데 튜터링에서는 튜터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봐주고 다 이해를 했는지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줘서 오랜기간 기억을 할 수 있게 됐고,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해나가며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튜터가 자신이 공부했던 방식을 알려주고 어려워했던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며 해결해나갔는지도 알려줘서 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아 좋았다.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튜터와 튜티들과 함께 공부해서 혼자서 공부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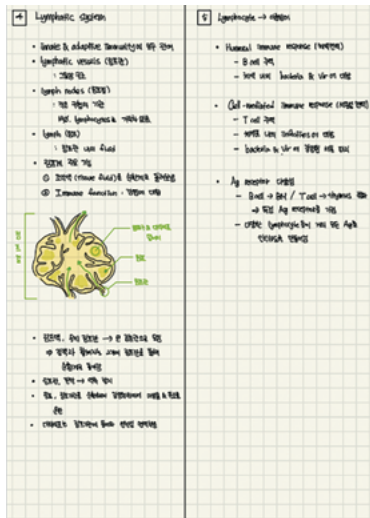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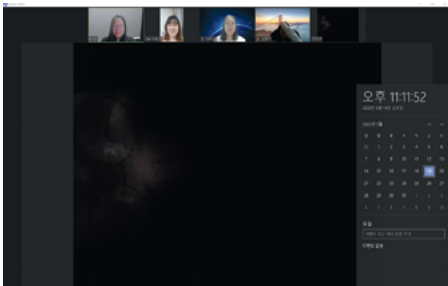
우수팀 명	미국에서 파티하는 벌은, 프롬비
학습 내용	일반생물학 튜터링
학습 기간	23. 4. 28 ~ 5. 19.
팀 원	튜터 : 이효은 (의생명과학과 21학번) 튜티 : 조유진, 하수연 (의생명과학과 22학번) 이지훈, 이화림 (미래융합학부 23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4월 28일	21:02~22:59	ZOOM	Nutrition and Digestion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해 보았다. 가장 먼저 섭취하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 생명체를 분류하고 이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인간의 소화계에 대해 자세히 탐구했다. 입과 식도, 위를 포함하여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전체적인 기관계의 역할과 특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유기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후에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알아 보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에 이용되는지, 또한 적절하기 이용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알아보았다.
5월 5일	21:03~23:04	ZOOM	The Immune System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해보았다. 면역계를 크게 선천적 면역과 적응 면역으로 나누어 각 면역계의 특징을 정리했다. 이때 선천 면역에서는 염증 반응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적응 면역에서는 memory를 통한 면역을 알아보며 어떤 부분이 선천적 면역과 차별점을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면역 체계에 관여하는 lymphatic system에 관해 탐구해보았다. 특히 lymph node를 중심으로, 의 내부 구조와 기능, 그리고 B cell과 T cell의 역할을 정리했다. 이후에는 AIDS와 allergy와 같은 면역계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들도 함께 알아보았다.
5월 12일	21:02~23:05	ZOOM	Reproduction and Embryonic Development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해보았다.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 여성과 남성의 생식계 구성을 탐구해보았다. 먼저 구조를 이해한 후에 여성과 남성에서 각각 배란 과정과 sperm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탐구했다. 그리고 sperm의 생성 과정과 reproduction cycle를 자세히 탐구해보며 각각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해보았다. 다음으로는 cleavage와 gastrulation에서 어떤 구조들이 생겨나는지, ectoderm와 같은 각 layer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5월 19일	21:02~23:11	ZOOM	Nervous System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해보았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적 단위인 neuron에 대해 알아보았다. Neuron의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을 이해했다. 다음에는 membrane potential을 탐구했다. Membrane 내부와 외부의 K 이온과 Na 이온의 농도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action potential 과정에서 각 단계의 전위와 명칭, 그리고 어떤 channel이 열리고 닫히는지 과정을 알아보았다. 이후에는 사람의 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분류됨을 알고, 이후에는 뇌의 전체적인 구조를 탐구했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특히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가 아닌 이상, 특별한 유대를 가지기 힘든 선후배 사이로 시작한 활동 인 만큼 초반에는 어색함이 없지 않아 존재했다. 게다가 이번 신입생은 무전공 입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선배들과의 접점이 적어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같은 생명과 학대에 흥미를 가지고 진로로서 목표로 둔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한 활동은 예상보다도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활동을 거듭할수록 처음의 어색함은 줄어들고 적극적으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학습이 가능해졌다. 물론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수동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활동의 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활동 내용에서 더 심화된 내용을 질문하는 등의 능동적인 태도가 월등하게 늘어났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전공의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일반생물학을 학습하면서, 1학년의 경우에는 선행이 될 수도 있었지만, 2학년 튜티에게 있어서는 헛갈렸던 부분이나 까먹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효은

초반에 걱정했던 것보다 더 원활하게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다들 능동적인 태도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최대한 다양하고 넓은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을 진행했는데,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조유진

전반적으로 튜터링을 통해서 생물학의 다양한 파트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때 단순히 전공 공부를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점에서 각자 발전된 부분이 더욱 있지 않았나 싶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 공부보다는 스터디나 튜터링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하수연

혼자라면 절대로 할 수 없을 학습을 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특히 본 수업보다 편한 분위기와 질문하기 쉬운 구도 덕분에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는 더욱 좋았다. 이미 한번 배운 부분이었는데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나 완전 새롭게 듣는 것처럼 잊고 있던 부분이 많아서 이 활동이 더 유익했다.

이지훈

학습법 소모임에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화림

혼자서 공부할 때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튜터분들과 같이해서 쉽게 알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질문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 공부를 혼자 했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니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간5

학습 내용 기본 간호학 튜터링

학습 기간 23. 5. 21 ~ 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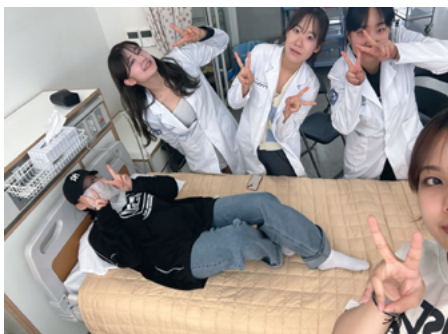
팀 원 튜터 : 방윤서 (간호학과 22학번)
튜티 : 서연지, 정예은, 조미혜, 정수아
(간호학과 22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5월 21일	13:00~16:00	대면	외과적 무균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하기 위한 바탕 지식을 공부함. 강 의안과 실습교재, 전공 교과서를 3회독씩 하도록 하였으며 실습을 실 제로 수행하기 전까지 완벽히 이론을 익히도록 함. 전공지식에 대한 퀴즈를 내고 모두 풀도록 하여 각자의 지식 수준 검토. 이론을 바탕으 로 실제 실습에서 적용함. 외과적 무균술 실습을 수행함.
5월 23일	13:00~15:00 16:00~17:00	대면	기본간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 요목을 순서대로 리뷰하고 실습 이론을 보지 않고 실습을 혼자 진행하도록 하며 튜터가 실습과정 지켜본 후 빠뜨린 요목, 잘못된 자세, 잘못된 기구 사용법 등에 대한 피 드백을 줌. 실습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도해줌.
5월 24일	14:00~17:00	대면	기본간호학 지침서에 대한 지식탐구. 강의안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 을 서로간에 노력으로 채워나감.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 서로 질문 하고 복기하며 실습의 숙련도를 증가시킴. 이론과 실습 내용을 복기 및 공유후에는 개인 실습을 연습함. 이후 서로의 실습을 평가해주며 배운 내용을 퀴즈를 내주는 형식으로 학습을 마침.
5월 26일	11:00~14:00	대면	기본간호학 강의안을 암기하고 공부함. 서로의 지식 수준을 확인하 는 시간을 가져 퀴즈를 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습함. 서로의 암 기법을 소개하며 더욱 잘 활용가능한 암기법을 찾는 형식으로 학습 을 마침.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 첫 번째는 단체로 학습하는 것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었다. 혼자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도 있었는데, 동기들과 함께하니 학습 시간마저 즐겁게 느껴졌다. 더불어 학습 정도를 동기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튜터링은 튜터가 동기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튜터가 정해져 있었지만, 모두가 튜터와 튜티가 되어 서로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동기들끼리 더욱 단단해지고 친밀해진 것 같다.

조미혜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교수님께 여쭙보기 전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것 같았다. 또 교수님과 달리 부담 없이 언제든지 모르는 내용을 질문할 수 있었다.

정수아

튜터링이 나의 학습에 있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공부를 시작하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 준 활동이었다.

방윤서

튜티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알려주는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더욱 강화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

서연지

서로 도우면서 학습하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고, 학습하는 시간이 마냥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정예은

튜터와 튜티 모두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잘 보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 또한 꼼꼼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리딩리더스]

우수팀 명 연두해요

학습 내용 독서 감상 및 토론

학습 기간 23. 4. 29. ~ 5. 18.

팀 원 김연서 (AI보건의료학부 21학번)
이준우 (스포츠의학과 22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4월 29일	15:00~17:30	카페	에리히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가 던진 시사점이나 저자의 의견에 대해 토의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성과 감정의 역할, 동기와 결과의 가치 비교, 갈등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제를 다루며 의견을 나누었다.
5월 9일	16:00~19:00	카페	케이트 크로퍼드의 AI 지도책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이 던져주는 시사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한 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대표적으로 AI 산업의 환경오염 및 국제 문제와 인간의 기계 부품화 문제, AI 적용 가능 분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5월 18일	19:30~21:30	카페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읽고 이 책이 저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논제를 만들어 의견을 나누었다. 논제들의 내용은 오만과 편견을 가져본 경험과 이를 내려놓기 위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결혼관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회차별 감상평

1차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감정보다 이성이 중요시되고, 효율성에 집착하게 되어 감정적인 것을 ‘촌스럽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으며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갈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갈등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꼭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책이었다. 특히 평소와는 다르게 미리 논제를 정해두고 독서를 해보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나 문장들에 대해서도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내 생각은 뭐라 말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읽다 보니 더욱 재미있고 깊이감 있게 책을 읽은 것 같다. 책을 읽고 나서 책이 던져주는 가르침들이나 질문들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은 더더욱 흥미로웠다. 크게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상 대의 의견을 듣다 보면 나도 갑자기 잊고 있던 경험들이 생각나며 새로운 생각들을 덧붙여 말하거나 새로운 논제를 제안하게 됐는데, 이게 재밌었다. 하지만 이렇게 물 흐르듯 꼬리에 꼬리를 물며 토론을 하는 것이 재미있기는 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기록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서로 논제로 설정하고 싶은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더 체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소감을 나누며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2차	그저 혁신적이고 놀라운, 미래가 기대되는 산업이라고만 생각했던 AI산업의 맨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자가 제시한 현재 가장 각광받는 산업인 AI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생각보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더욱 흥미로웠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 시사점들에 대한 토론이 그저 우리의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논제를 미리 정해두고 독서를 한 저번 활동과는 달리 이번에는 독서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서로 논제를 제시해 보았는데 이 덕분에 ‘나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간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논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흥미로웠다. 다만 책에서 저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그저 사실 전달과 시사점 제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깊이감 있고 질이 높은 논제들을 추출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고, 이에 다음 활동 때는 토론 시작 전에 책의 주제가 무엇이며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시간을 가지자는 의견이 나왔다.
3차	유명한 고전인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선정할 때는 그저 로맨스 소설인가 싶어서 다소 망설임이 있었지만 한 번쯤은 가보고 재밌는 책을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정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다. 오만과 편견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는데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를 생각하게 되고,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 또한 하게 되었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책의 주제는 언뜻 보면 그저 당연한 말이고 오만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뭐 별거인가 싶었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저번 활동 때 논제 설정에서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토론 시작 전에 책의 전체적인 주제를 정의내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때 많은 명대사들을 서로 공유하며 ‘이게 주제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덕분에 책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 또한 토론이라고 하면 좀 더 정보 전달에 집중하고 시사점들을 많이 다루는 책을 다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진행한 토론이라 더욱 재밌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더 찬반 논쟁이나 의견이 갈리는 논제들을 설정해서 서로를 설득시켜보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활동 소감

종합의견

(생략) 누군가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독서의 매력은 현실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하지 못하게 되는 생각들에 빠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전공 강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학업과 알바를 병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만 하도록 강요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토론 자료로 선정된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와 ‘오만과 편견’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고 삶을 대하는 자세 또한 배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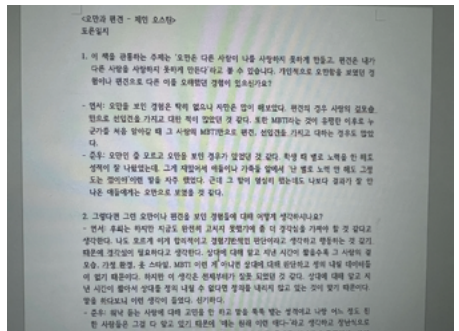
또한 과제, 수행평가를 위해서 주어진 논제를 가지고 토론해 본 적은 있어도 토론 논제를 설정하는 활동은 처음 이었는데, 이게 토론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웠다. 논제를 설정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하다 보니까 평소였으면 그냥 읽고 지나쳤을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고, 고뇌하며 읽게 되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생각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정말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로 매력적이었다.

(중략)

요즘 세상은 이성과 능력, 효율, 과학적 사고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폄하되고 있다. 하다못해 독서가 ‘시간 낭비’라고 취급당하는 시대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다. 삶을 다채롭게 채우는 것은 인간의 서로 다른 감정이고 서로 다른 생각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윤리 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술은 오히려 인류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윤리 의식을 기르고 올바른 합의를 이루어 내려면 사람들이 좀 더 일상에서 ‘사고하고 공유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또한 이러한 욕구를 시간 낭비라고 미뤄둔 채 효율적으로 살려고만 노력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대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핑계를 대며 마음껏 사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다시 한번 행복했음을 밝히며 아쉬움을 뒤로한채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활동 사진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리딩리더스]

우수팀 명 마음부자

학습 내용 독서 감상 및 토론

학습 기간 23. 4. 8. ~ 5. 6.

팀 원 정윤지, 이소연, 임하정,
채지은, 이민영, 김지우 (약학과 19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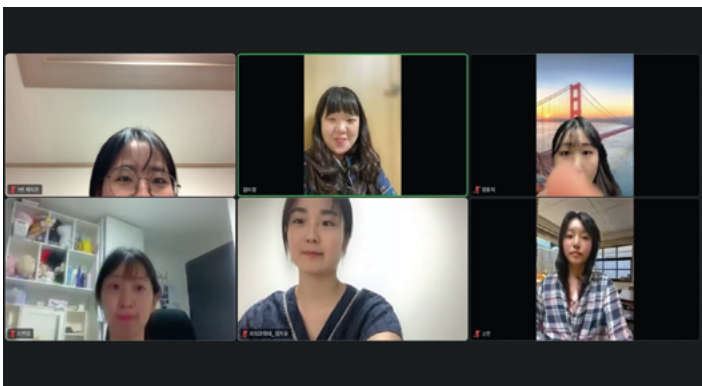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4월 8일	10:00~12:00	ZOOM	약학도로서 약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약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책을 선정하여 활동하였다. 이 책은 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책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 14가지에 대해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약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어떤 효능을 가지는지, 부작용은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약 복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등을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의 발견과 개발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담고 있어, 약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 약물치료학 I, II에서 배운 약물들도 책에 나오고 쉽게 서술되어 있어, 배운 약물들을 접목해 이해해보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다.
4월 29일	10:00~12:00	ZOOM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을 위해 선정한 ‘세이노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Say No!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자기계발서를 함께 읽으며 인생을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사는 마인드를 배워나갔다. 이 책을 읽어나가며 파트마다 각자 느낀 점과 배우고 싶은 점, 그리고 비판점과 경험까지 공유하며 더욱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각 내용과 관련된 고민을 각자 공유하고 서로 조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각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각자 어떤 습관을 만들어볼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월 6일	10:00~12:00	ZOOM	인문학 교양을 쌓기 위해 ‘데미안’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미안은 불안한 젊음에 바치는 책으로, 고통하고 힘든 과정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의 자기 고백 식으로 읽히는 책은 큰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혼자 읽기엔 많은 어려움을 느껴 포기했다는 친구 때문이었다. 함께 시간을 정해두고 같이 읽어나가며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주인공의 정신적 성숙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각자 느낀 점과 각자 본인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또한, 리딩리더스 팀원들과 함께 내가 싱클레어나 데미안이었던 경험이 있는지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회차별 감상평

1차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14개 질병을 뽑아 그에 따른 치료제를 설명하고 있다. 항우울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두통약, 항생물질,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간질 치료제, 인플루엔자 치료제, 알레르기 치료제(항히스타민제), 에이즈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경구피임약,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을 대부분 설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 중에 빠진 약은 고혈압 치료제, 해열진통제 정도만 제외된 것 같다. 각각의 약들의 원리와 한계점을 쉽게 설명하고, 또 기원부터 설명해 읽기 쉽게 쓰여있었다. 책을 손에 들고 읽는데 걸리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이해하기 매우 쉬운 약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다만, 얘기를 나누다보니 이 책에서 질병이나 약의 최근 트렌드가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다. 아무래도 15년 정도 전에 집필된 책이라 최신 지견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질병과 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책이라 생각되었다.
2차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시절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한 경험담들이 담겨 있다. 특히 돈버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법, 주식이나 채권 거래법, 각종 금융상품 활용법 등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및 행동 지침까지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평소 제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경제서적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론 중심이거나 추상적인 설명만 있을 뿐인데, 이 책에서는 실제 사례 위주의 실용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어 이해하기 쉽고 당장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책의 아쉬웠던 점은 분량이 너무 많아 읽기 어려워 핵심을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웠던 점이었다. 저자인 세이노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서 최고가 되라고 말한다. 즉, 돈 자체를 쫓기 보다는 그 과정에 중심을 두라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던 노력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지금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노력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3차	어릴 적 프란츠 크로머에게 협박당하며 어두운 유년기를 보낸 싱클레어는 어느날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후 대학생이 된 싱클레어는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부상을 입고 데미안을 만나게 된다. 정신을 차려보니 데미안은 없고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닮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데미안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몰입감 덕에 금세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물론 철학적인 요소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의 해석방식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읽으면 그 재미가 더해지는 책이었다. 주인공 ‘싱클레어’의 성장을 다룬 이 책을 읽으며, 멘토들의 가르침을 통한 싱클레어의 내적인 성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줄거리의 순서에 따라 가정과 바깥 세상이라는 두 개의 세계, 카인과 아벨, 그림 속 베아트릭체와 데미안, 새와 알, 압락사스의 선과 악이라는 상반된 구성으로 두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가지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대립과 공존의 구성으로 인해 인간이 내면을 갈고 닦는 데에는 반드시 올바른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닌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절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절제를 통해 내면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작품에 등장했던 네명의 멘토를 통해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사진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영글클럽]

우수팀 명 무빙워크

학습 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학습 기간 23. 4. 18. ~ 5. 19.

팀 원 장주휘(스포츠의학과 20학번)
심상미, 박기연, 인혜은, 김소중, 경지혜
(바이오공학과 21학번)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4월 18일	15:00-17:00	미래관 5층	위대한 쇼맨을 감상한 후 팀원들과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5월 17일	20:06-22:10	구글 미트	인턴을 감상한 후 팀원들과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5월 19일	13:17-15:20	구글 미트	굿 윌 헌팅을 감상한 후 팀원들과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차별 감상평

1차	뮤지컬 영화라서 그런지 노래 듣는 재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다채로워서 즐거웠다. 각 개인마다의 캐릭터가 잘 표현되어있었고, 각각의 스토리가 잘 녹여져 있어서 그런지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고, 영화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인지 보는 내내 흥미로웠다.
2차	70대 인턴과 30대 CEO를 다룬 이야기가 흔치 않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턴이라는 영화처럼 주제를 무겁지 않게 잘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다양한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는데, 영화가 끝난 후에도 생각과 여운이 남는 영화였던 거 같다.
3차	월은 어린 시절에 파양당하고 새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일로 인한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담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방어기제를 보이는데, 이러한 월이 조금씩 보는 과정이 즐거웠던 거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 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처음에 영글클럽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각자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 무엇보다 영화를 보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각자 느낀 점을 얘기해보면서 다시 기억에 남게 하는것도 좋을 거 같아서 지원했는데, 각자 활동하면서 느낀 점도 얘기해보고, 인물들도 파악해보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마다 바라본 관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다. 다음에도 비슷한 활동이 있다면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17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영글클럽]

우수팀 명 WatCHA

학습 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학습 기간 23. 5. 11. ~ 5. 21.

팀 원 박지호, 윤정빈, 장희원, 전서연, 홍세진
(의생명과학과 2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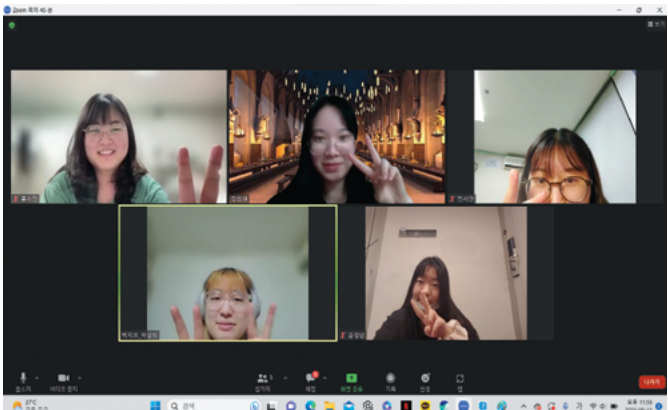
학습 일지

날 짜	시 간	장 소	학습활동 내용
5월 11일	11:07~13:16	ZOOM	영화 ‘콘스탄틴’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선과 악의 대립 속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에 대해 감상하고 감상문을 작성해 보았다. 작성한 감상문을 토대로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해당 영화에서 비치는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영화의 다양한 연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낀점을 나누어 보았다.
5월 16일	20:04~00:15	ZOOM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주인공 ‘빌리’의 꿈을 위한 노력과 성장을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배경 또한 생각하고 감상한 후 감상문을 작성해 보았다. 작성한 감상문을 토대로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인공 ‘빌리’의 꿈과 성장에 대해 느낀점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어보며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았다.
5월 21일	21:59~00:06	ZOOM	재능보다 외면의 한계를 중시한 주인공에 대해 생각해보며 감상한 영화 ‘스타 이즈 본’을 통해 느낀점을 감상문으로 작성해 보았다. 적성한 감상문을 토대로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스타’이면서도 비참해져가는 ‘잭슨’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타’로서의 외로움과 고충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느낀점을 나누어 보았다.

회차별 감상평

1차	이 영화의 큰 주제인 ‘선과 악의 대립 속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주인공인 ‘존 콘스탄틴’에 대해서도 생각한 친구가 있어서 신기했다. 그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생각은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주인공이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했다. 사탄의 옷 색깔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신기 했다. 감독이 숨겨놓은 의도들을 혼자서 찾아내는 것 보다 여럿이서 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좋았다.
2차	무작정 주인공 ‘빌리’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 내 모습과는 다르게 ‘빌리’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생각하며 많은 고민을 한 것이 느껴졌다. 그것을 보고 나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족의 꿈을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따뜻해지면서도 쓸쓸한 현실을 느끼게 해주었다. ‘좋은 어른’에 대해 생각해 본 친구의 글을 보고 ‘좋은 어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도 그런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차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만 본인에게는 한없이 매정하고 단호한 사람인 ‘잭슨’의 몰락은 너무 비참하고 마음 아팠다. 내 주변에도 누군가의 행복에 슬픔이 가려진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다독여가며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여러 장르의 영화들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각기 다른 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뜻깊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시도해보며 생각지 못했던 스토리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며 영화 감상 후 모두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영화를 보고 다 같이 소감을 주고받으며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게 되었다. 또한 영화를 보고 난 뒤 친구들이 각자 본인만의 스타일로 영화를 해석해 나가는 것을 듣는 재미가 있었다. 이를 통해 영화를 더욱 풍부하게 감상하고 여운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영화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세상을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다.